

1.

제시문 (가)에서의 낭비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. 제시문 (가)에서의 낭비는 '도락'이다. 이 '도락'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가에게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겠지만, 평범한 사람들에게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이다. 게다가 '도락'을 추구함으로써 감정적으로 기쁨또한 누릴 수 있으니 '도락'을 추구하는 것, 즉 낭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, 심지어 감정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가지는 행위라 할 수 있다.

이와 달리 제시문 (나)에서의 낭비는 벽돌공들의 시간이다. 제시문 (나)의 프랭크 길브레스는 벽돌공들의 시간낭비를 없애주었다. 제시문 (나)의 2~4문단이 그 예시이다. 이를 통해 길브레스가 흥미를 가진 '과학적 관리법'은 시간낭비를 없애는 것임을 추측해 낼 수 있다.

요컨대 낭비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. 제시문 (가)에서 말한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낭비가 있어도 되는 것이며, 심지어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. 반면 제시문 (나)에서 말한 과학적 측면에서의 낭비는 있을 필요가 없기에 제거대상이 된다.

제시문 (다)에서의 정신활동은 '망각'인데, 이 '망각'은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다. 왜냐하면 만약 '망각'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과거를 회상하는데 시간을 너무나 많이 허비할 것이고, 이로 인해 우리의 사고를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. 이를 통해 '망각'은 우리의 기억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이 사실은 '망각'을 제시문 (가)의 낭비에 대한 태도인 '낭비란 어쩔 수 없는 것'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. 게다가 '망각'은 제시문 (나)로도 설명할 수 없다. 예를 들면, 학생이 시험을 보는 상황에서 '아! 이 내용, EBS 74p에 있는건데..'하며 필요치 않은 정보만 기억하며, 정작 필요한 정보를 기억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. 이 상황은 제시문 (나)에서 말한 것처럼 기억을 효율적으로 다루지 못했으므로 '망각은 제시문 (나)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. 그러므로 제시문 (다)의 '망각'은 어떠한 관점에서 설명해 낼 수 없는 변칙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.

2.

제시문 (나)의 프랭크 길브레스가 벽돌쌓기에 적용했던 과학적 관리법은 시간낭비를 줄이는 것이다. 이는 길브레스가 벽돌공들의 시간을 아껴주었다는 내용인 제시문 (나)의 2~4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.

이 과학적 관리법을 회사의 채용과정에 적용해 본다면, 채용과정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.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채용과정 중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소모되는 면접심사 비중을 줄이고,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소모되는 서류심사 비중을 늘려야 하는데, 이는 서류심사를 엄격히 하면 두 가지 모두 달성해 낼 수 있다.

제시문 (라)를 통해서도 면접심사의 방식에 대해 생각해 낼 수 있다. 제시문 (라)의 실험결과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전해준다. 첫째는 사진이 더 선명할수록 그 사진을 더 정확히 인지하는 것, 둘째는 사진의 공개시간이 길수록 그 사진을 더 정확히 인지한다는 것이다. 하지만 제시문 (라)의 실험결과가 전해주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. 제시문 (라)의 표에 나타난 평균 값에 더욱 주목하여 보면, 사진의 공개시간을 늘릴 때보다, 사진의 선명도를 높일 때 사진을 더 정확히 인지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으며, 하나의 방식을 두 단계 높이는 것보다 각각의 방식을 한 단계씩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다.

이를 면접심사에 적용시키기 위해 먼저, 말을 바꾸어 본다면 사진의 선명도를 높이는 것은 면접자의 수를 줄이는 것으로, 사진의 공개시간을 늘리는 것은 면접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바꾸어 볼 수 있다. 따라서 면접심사를 통해 훌륭한 인재를 효율적으로 선발하기 위해서는 면접심사 시간을 늘리는 것과 면접자의 수를 줄이는 것을 적당히 안배해서 해야 함을 알 수 있고, 만약 한 가지 요소만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면, 면접시간을 늘리는 것보단 면접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.